

박정훈 목사
와일리한인감리교회 주일예배
이사야 32:1-8
2026년 3월 22일 오전 11시

하나님의 나라, 존귀한 사람들

< 주역 도우소서 >

이사야 32 장은 장차 완성될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주지만,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이미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 12:28).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단순한 이상이나 소망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메시아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왕이 공의로 다스리고, 고관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나라의 일을 공정하게 수행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사 32:1). 이는 당시 유다 지도자들의 부패한 현실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사 1:23). 당시 유다의 고관들은 뇌물에만 마음이 있어서 뇌물을 바칠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호소는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허나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는 백성을 살피는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호소를 듣는 귀가 막히지 아니할 것입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사 32:3). 이사야가 이상적인 통치자를 말하였다면, 잠언은 그 통치자가 실제로 어떻게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때에게 마음을 두라”(잠 27:23). 이 잠언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잠 25:1).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잠언 25 장부터 29 장까지 나옵니다. 이사야와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동일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이상을 함께 증언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백성을 돌보는 목자

구약 성경에서 양 떼는 백성들이고, 목자는 통치자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삼하 5:2). 즉, 목자의 수준이 곧 양 떼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지도자가 바르면 백성이 잘 살고, 지도자가 악하면 백성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나라도 역사 속에서도 정치 지도자를 ‘목자’로 이해해 왔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지방 수령들을 백성들을 기르는 목자라는 뜻의 목민관(牧民官)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다의 목민관에게 잠언 27:23 이 주어졌다면, 조선의 목민관들에게는 <목민심서>가 주어졌습니다. <목민심서>의 저자 정약용은 부패한 현실 속에서 참된 목민관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애민(愛民)’, 곧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헌데 정약용은 왜 이런 책을 썼을까요? 당시 많은 관리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 지도자는 참된 목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조선 시대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 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잠언을 선택한 이유도 당시 유다의 목민관들이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지 않고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타락이 가속화되어 예루살렘 멸망 전의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 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겔 34:2). 허나 메시아의 나라의 목민관들은 백성들의 형편을 잘 알아 두며 백성들에게 정성을 기울이는 ‘애민’을 실천할 것입니다.

한편, 신약 성경에서 양 떼는 교인들이고, 목자는 목회자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벧전 5:2). 목자는 하나님의 양 떼를 잘 먹이고 잘 돌보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한 책임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목자에게는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벧전 5:4).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확신은 목자의 으뜸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목자의 사명을 일깨워 주신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다는 자책감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생활로 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 날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요 21:3).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두고 도망쳤다는 자책감에 시몬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떠났습니다. 그런 양 떼들을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심방을 하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요 21:4).

예수님께서서는 밤새 물고기 잡느라 배고픈 제자들을 위해 손수 아침을 준비하셨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요 21:9).

2. 하나님 나라의 특징: 가치가 바로 세워진 나라

밥을 다 먹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요 21:15).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목자의 사명으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사명의 위임은 세 번 계속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의 나라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당시 초대교회에도 억지로 또는 더러운 이익을 탐내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목자가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32 장이 보여주는 메시아의 나라의 이상은 그만큼 이사야 당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유다의 모습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나라가 시작되면, 그 나라의 관리들은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귀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가 말하는 메시아의 나라는 단순히 정치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적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가치의 전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사 32:5). 그러나 현재의 유다는 어떠합니까.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일컫고, 참으로 존귀한 자를 도리어 우둔하다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치가 뒤집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며, 쓴 것을 달다 하고 단 것을 쓰다 하는 혼란이 가득합니다. 겉으로는 성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삶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를 선언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사 5:20). 하나님의 나라는 이 뒤틀린 가치를 바로잡는 나라입니다.

나아가 메시아의 나라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히브리어로 나발(נבל)입니다. 나발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도덕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25 장에 나오는 나발입니다. 나발의 부모는 어찌자고 자식의 이름을 어리석은 자라는 뜻의 나발로 지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나발은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삼천 마리요 염소가 천 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 털을 깎고 있었으니”(삼상 25:2).

나발은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와 함께 아름다운 아내까지 두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삼상 25:3). 현대 이렇게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나발이 알고 봤더니 갈렙 족속이었습니다. 갈렙 족속은 갈렙의 후손, 갈렙 계열 사람으로 이해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말한 몇 안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갓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민 14:24). 헌데 나발은 조상 갈렙의 신앙을 물려받지 못하였습니다.

3. 하나님 나라의 사람: 존귀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하여 자동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에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 기도 제목이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나은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과 교인들이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청출어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가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입니다. 믿음은 혈통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마 3:9).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누구이냐’를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음 속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어리석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발은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양 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나발은 잔칫날에 찾아온 손님인 다윗의 부하들을 문전박대하였습니다. 떡과 고기 대신 모욕과 호통을 주었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삼상 25:10). 이새의 아들은 사울 왕이 다윗을 낚잡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헌데, 나발이 다윗을 향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인에게서 뛰쳐 나온 종놈이라고 모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무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문제입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사 32:6).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말을 하며 함부로 입을 놀립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지 않고 굶주린 사람의 밥그릇을 쏟아 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나라에 “동냥은 못 쥐도 쪽박은 깨지 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헌데 어리석은 자는 동냥도 안주고 쪽박도 깨버리는 자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 나발은 다윗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삼상 25:38).

하나님께 함부로 말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 악한 삶을 사는 악한 자가 됩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영적 상태이며, 그 결과로 반드시 악한 삶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사 32:7). 악한 자는 의도적으로 악을 계획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는 메시아의 나라에는 설 땅이 없습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오직 존귀한 뜻을 품고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존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사 32:8).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의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시 16:3).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존귀함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은 악한 계획입니까 아니면 존귀한 일입니까? 거짓과 계략으로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성도가 아닌 악한 자입니다. 성도는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며, 마침내 그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귀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존귀하고 고귀한 일을 계획하고, 그 고귀한 뜻을 펼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Soli Deo Gloria >